

[1~10] 《백정의 아들, 포와에 가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용이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 ㉠ 용이 어머니를 쫓아온 수상한 남자를 피해 한밤중 짐을 꾸려 제물포로 떠난다.
- ㉡ 포와에 가면 일 년 내내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존 목사의 말에 이민을 결심한다.
- ㉢ 1902년 12월 제물포를 출발하여 일본에서 미국 배 갤릭호로 갈아타고 1903년 1월 13일 새벽 하와이에 도착한다.
- ㉣ 통나무집에 살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주말도 없이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힘든 생활이 시작된다.
- ㉤ 조선에서 새 이민단이 오고, 조선 아이들을 위해 열게 된 국어학교에서 용이 어머니는 우리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

(정답:㉣)

2. 포와에서 일하게 된 사탕수수 농장의 생활 모습을 전부 고른 것은?

- ㉠ 새벽 4시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깨면, 꼬마 기차를 타고 농장으로 가 하루 10시간을 일했다.
- ㉡ 퇴약별 아래에서 남자들은 자신의 키보다 높은 사탕수수대를 자르고 여자와 아이들은 잡초 뽑는 일을 했다.
- ㉢ 포르투갈인, 일본인, 중국인 구분 없이 어울려 사는 캠프 주변으로는 화장실 오물이 흘러 악취가 심했다.
- ㉣ 서슬 퍼런 백인 현장 감독 루나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못마땅하다는 듯 유독 조선인들만 감시하고 미워했다.
- ㉤ 오전 11시 '카우카우 타임'이 되면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벤토 박스'를 펼쳐 놓고 빙 둘러앉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정답:①)

3. 용이가 아래처럼 이야기한 의도를 바르게 짐작한 내용만 고른 것은?

용이가 옆에 있던 장쇠를 와락 끌어안고 외쳤다.
 “칭아, 인당수에 빠질 게 아니라 차라리 갤럭시호를 타고 포와로 가자꾸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용이도 활짝 웃었다.

- ㉠ 심청전을 현실에 맞도록 바꾼 자신의 재치를 자랑하고 싶어서
- ㉡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새 출발을 한다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 ㉢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두렵지만 희망을 갖자고 말하고 싶어서
- ㉣ 우리가 가는 곳이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 ㉤ 뱃멀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재미있는 말로 잠시라도 웃게 하고 싶어서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④)

4.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런데 양아버지가 대학 다니면서 많이 달라지더라. 어느 날, 날 불러 앉히고는 글썄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야. 자신이 잘못 살았다면서.”

- 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꼬장꼬장했던 양반이 부드러워졌다.
- ② 신분이 낮은 장쇠가 양반인 자신을 부양하는 일이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 ③ 조선을 떠나 왔더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며 편협하게 생각했던 지난날을 후회하였다.
- ④ 포와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장쇠까지 캘리포니아로 밀항시켰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다.
- ⑤ 상투를 틀어야 체통이 선다고 생각했는데 짧은 머리에 포마드를 바른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며 달라진 세상과 맞추려고 했다.

(정답:④)

5. 이 책을 읽고 하게 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축제 때 김치와 떡, 잡채를 사 먹는 모습을 보니 평소에는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며 지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
- ② 용이와 장쇠가 ‘비빔밥 영어’를 사용해 가며 다른 나라 아이들과 어울리고 빨리 포와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이 대견했어.
- ③ 고된 이민 생활에서도 뿌리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 글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어른들에게서 깊은 애국심이 느껴졌어.
- ④ 조선 노동자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하여 루나를 쫓아낼 때, 약자도 뜻을 모으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 ⑤ 차이나타운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고생도 많았지만, 미국인을 상대로 돈을 벌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장쇠의 용기와 의지력에 감탄했어.

(정답:①)

6. 이 책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120여 년 전 조선 땅에 외세가 밀려올 때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들의 삶을 상상하게 해 준다.
- ② 낯선 나라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동안에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조선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동하게 만든다.
- ③ 신분제가 폐지되고 단발령이 내려진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던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 모습을 알게 해 준다.
- ④ 선조들이 이민을 떠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어떤 각오와 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향했는지 이해하게 해 준다.
- ⑤ 해외 동포들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모은 자금을 어떤 경로로 임시정부에 전달했는지 생생히 보여 준다.

(정답:⑤)

7. 아래에서 설명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들어 있는 문장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해요. 그리고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요.

- ① 장 씨가 용이를 놀렸다.
- ②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 ③ 농장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 ④ 용이 어머니가 활짝 웃었다.
- ⑤ 박 권사 말에 박수가 쏟아졌다.

(정답:①)

8. 비유하는 표현이 쓰이지 않은 문장은?

- ① 느티나무의 연둛빛 잎사귀가 바람에 팔랑거렸다.
- ② 바지통이 어찌나 좁은지 뻐뻐 마른 황태 같았다.
- ③ 하얀 물거품이 부챗살처럼 펼쳐졌다 사라지며 뒤따라왔다.
- ④ 용이는 바윗덩이처럼 꿈쩍도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다.
- ⑤ 아차 싶은 용이는 사람들 사이로 다람쥐처럼 쭉르르 빠져나와 줄행랑을 쳤다.

(정답:①)

9.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보며 생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05년 새로운 삶을 찾아 1,033명의 한인들은 인천 제물포를 출발하여 낯설고 먼 멕시코로 향했다. 하지만 이는 이민 중개인에 의해 단 한 차례로 끝난 대규모의 불법 노동 이민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상낙원이 아닌 유카탄*의 뜨거운 불볕더위와 난생 보지도 못한 에네켄* 밭이었다. 당시 대한 제국은 멕시코와 어떠한 외교적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멕시코 이민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계약 기간 동안 각 농장에 고립되었으며, 1909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1910년 조국이 사라지자 갈 곳을 잃고, 여권도 무효되어, 현지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들의 손이 엉망이 되었는데, 특히 왼손은 에네켄 가시에 찢리고 굵혀 하루도 피가 멈출 날이 없었다.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온통 가시에 찢려 항상 몸이 엉망진창이 됐으며 가시가 엉겨 붙은 채 집에 돌아와서는 가시를 빼고 상처를 만졌다. 감독들은 일을 느리게 한다거나 잘못한다고 하여 채찍으로 때리기 일쑤였다. 이와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심각한 언어장애와 이질적인 문화로 상당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 <인천 한국 이민사 박물관 ‘최병덕 선생의 회상’> -

*유카탄: 멕시코 남동부에 있는 반도.

*에네켄: 선박용 로프 등을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으로 현지어로 애니깁.

- ① 1900년대 초, 용이네 가족이 포와로 간 것처럼 멕시코로 이민을 간 선조들도 실제로 있었다니 놀랍다.
- ② 포와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갔을 텐데 도착 후 마주친 현실이 생각과 달라 절망스러웠겠다.
- ③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용이네 가족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견디기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 ④ 에네켄 가시에 찢리고 채찍을 맞으며 노예처럼 일하던 이야기를 실제 인물의 말로 들어 보니 그 고통이 매우 끔찍하게 느껴진다.
- ⑤ 돌아갈 조국이 사라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타국에 뿌리를 내려 정착한 선조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된다.

(정답:③)

10. [가]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나는 이야기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

세상은 이렇게 섞이면서 연결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전에 없던 관계가 생기고 여러 나라의 특색이 섞인 독특한 문화도 탄생하니까요. 서로의 음악을 나누고, 몰랐던 놀이를 배우고, 새로운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이지요.

- 《요리의 탄생》(풀빛미디어) -

[나]

- 나라별로 먹을거리도 먹는 방법도 달랐다. 일본 사람들은 주먹밥 ‘무스비’를 먹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둥그런 떡 모양의 ‘말라사다’를 손으로 뜯어 먹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죽같이 생긴 ‘포이’와 생선을 수저 없이 먹었다. 조선 사람들은 밥과 돼지고기장조림에 김치, 무말랭이무침 등을 젓가락으로 먹었다.

목에 수건을 두른 남자가 햄버그스테이크 한 조각과 샐러드를 덜어 주었다. 용이 어머니가 장조림과 김치를 담아 주니 남자는 김치가 매운지 호호 불면서도 맛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가 컵을 건네며 마셔 보라는 시늉을 했다.

“그거 혹시 가배(커피) 아닌가요?”

신포덕의 말에 용이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 아말리아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아말리아 엄마가 기다란 나무 삽에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얹더니 가마에 집어넣었다. 용이랑 장쇠가 신기한 듯 바라보자 아말리아가 빠옹(빵) 만드는 것이라 했다. 아말리아 방에는 악기가 있었다. 박을 반으로 쪼갠 듯한 몸통에 가야금처럼 줄이 달린 모양이었다. 원래는 포르투갈 전통 악기인데 하와이에서는 ‘우쿨렐레’라고 부른다고 했다.

- 《백정의 아들, 포와에 가다》 -

- ①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던 ‘빵’이 순우리말이 아니었다니 다른 나라 문화와 교류한 흔적이 우리말에 남아 있구나.
- ② 낯선 땅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며 어울리는 동안 잠깐이라도 서로 위로가 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
- ③ 처음 보는 악기와 음식이 낯설었을 텐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태도를 배우게 돼.
- ④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과 음악을 알리고 나누면서 그들의 문화와 섞이고 연결 된다면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야.
- ⑤ 미래를 살아갈 우리는 이야기 속 아이들처럼 우리 것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즐길 줄 아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해.

(정답:④)

[11~20] 《클라라의 만물상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1.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수재: 제로 스위치로 친구들의 부러움도 사지만 5학년 2반 특방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아이템의 유혹에 빠진다.
- ② 민지: 5학년 여자 중 달리기를 제일 잘하기로 유명하고 학교에 사는 길고양이 치루에게 가끔씩 밥을 챙겨 준다.
- ③ 세영: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단소 선생님 역할을 할 때는 짜증 많은 잔소리꾼이며 길고양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 ④ 재영: 생일 초대에 수재를 빼놓지 않는 착한 친구이지만 욕쟁이 할머니께 장난친 사람이 수재라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 ⑤ 철민: 키 크고 몸집도 좋은데다 성격이 거칠고 위협적이었지만 ‘할매떡볶이 먹방’ 영상이 공개된 후 태도가 수그러든다.

(정답:③)

12. 주인공이 아이템에 치른 값과 그 효능으로 맞지 않은 것은?

| | 아이템 | 값 | 효능 |
|---|---------|----|--------------|
| ① | 금팔찌 | 노력 | 마음의 소리 듣기 |
| ② | 날개 운동화 | 끈기 | 나는 듯이 달리기 |
| ③ | 물안경 | 용기 | 투명인간으로 변하기 |
| ④ | 무지개 음료수 | 긍정 | 수재2, 수재3 만들기 |
| ⑤ | 개나리 상자 | 희망 | 계약 파기하기 |

(정답:⑤)

13. 아래 클라라의 말을 통해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를 바르게 짐작한 것은?

-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찮게 취급하니까요.”
- “그리고 인간은 깨달죠.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한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가능성’이란 것도, 자기 자신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 ① 사람들이 가진 각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 ② 남들과 한데 어울려 지낼수록 소중한 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 ③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하찮다고 여길수록 남들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 ④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만족이나 기쁨도 반복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 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남들이 원하는 것은 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정답:①)

14. 진짜 수재가 가짜 수재를 보며 한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가짜 수재가 부럽다.
- ② 가짜 수재가 하는 것처럼 내 말과 행동을 바꿔야겠다.
- ③ 진짜인 척하는 모습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얄밉다.
- ④ 엄마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가짜 수재의 행동에 질투가 느껴진다.
- ⑤ 학교와 집에서 점점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

(정답:②)

15. 이 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요할 때마다 새 아이템을 쉽게 얻어 해결하는 수재를 보니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 ② 관리 아저씨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사건을 보며 사소한 장난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③ 원하던 아이템을 갖게 될수록 더 욕심을 부리는 수재를 보며 능력이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④ 아이템을 쓰는 동안 이것도 능력이라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듯해 걱정스러웠다.
- ⑤ 아이템과 함께 점점 본모습을 잃어 가는 수재를 보며 끈기, 노력, 용기 등이야말로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정답:①)

16. 밑줄 친 부분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벌 받은 거야. 오지랖 부린 벌!”
→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다.
- ② 물론 선생님의 장단에 맞춰주다 그만둘 생각이었지.
→ 상대방의 비위나 기분을 맞추어 말이나 행동을 하다.
- ③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싶었다.
→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 ④ 그중에는 철민이도 있었는데, 철민이만큼은 코웃음을 쳤어.
→ 남을 하찮게 여기며 비웃다.
- ⑤ 아저씨의 손을 벗어나려고 용을 쓰던 수재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
→ 어려운 일이나 책임을 살살 피하다.

(정답:⑤)

17. 아래에서 설명한 복합어끼리 묶인 것은?

복합어: ‘사과나무’, ‘검붉다’처럼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과 ‘맨주먹’, ‘햇밤’, ‘덧신’처럼 뜻을 더해 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을 복합어라고 해요.

- ① 눈물, 손목, 주고받다
- ② 만물상점, 벌레, 값싸다
- ③ 만화책, 아빠, 날카롭다
- ④ 무지개, 음료수, 다다르다
- ⑤ 지팡이, 운동화, 집어먹다

(정답:①)

18. [가]를 바탕으로 [나]의 민지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가꾸고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없이 대하는 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힘, 스스로를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자세를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5학년 도덕> -

[나]

민지는 항상 연습 때마다 끝까지 남아서 더 하고 가곤 했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좀 바보 같은 질문이야.”

“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대회에 나가고 싶으니까.”

“대회에 나가서 뭐 하게?”

“1등 하는 거지.”

“1등 하면 뭘 하는데?”

수재의 계속되는 질문에 민지는 슬슬 짜증이 나는 것 같았어.

“내 꿈은 육상 선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꼭 1등을 할 거고.”

“여학생 중에는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내일도 네가 뽐힐 거고.”

“내 목표는 우리 학교에서 1등이 아냐. 그러는 넌 갑자기 뭐야?”

“뭐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민지는 날카롭게 대꾸했어.

“너 원래, 달리기 잘 못했던 거 알아. 작년에도 너랑 같은 반이었으니까.”

- <<클라라의 만물상점>> -

- ① 민지는 자신이 가진 달리기 재능을 가꾸어 스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한다.
- ② 수재가 원래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었다며 다그치는 민지는 우울감에 차 있는 아이이다.
- ③ 민지는 친하지도 않은 수재의 바보 같은 질문에도 육상 선수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아이이다.
- ④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 가고 싶을 텐데 홀로 남아 열심히 연습하는 민지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인내심 강한 아이이다.
- ⑤ 만약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지가 지금처럼 자신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노력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답:②)

19. 이 책과 아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중국에 ‘핑’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핑은 식물을 기르는 재주가 있었다. 풀도 나무도 꽃도 잘 가꿀 수 있었다. 핑뿐만이 아니라 임금을 비롯한 온 나라 사람들이 꽃을 좋아했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늘 꽃향기가 실렸다. 임금님은 나이가 많아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던 중이었다. 임금이 나눠 준 꽃씨로 꽃을 피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광고를 본 아이들이 꽃씨를 받아갔다. 핑도 꽃씨를 받아다가 심었다. 여러 날을 돌보았는데도 핑의 화분에 꽃은커녕 싹도 나지 않았다. 여러 날 후 다른 아이들은 탐스럽게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임금님을 찾아갔다.

풀이 죽은 핑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싹이 트지 않은 빈 화분을 그냥 가져가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다. 핑의 아버지는 정성을 들여 가꾼 결과이니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핑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임금님은 핑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거였다. 알고 보니, 임금님이 나눠준 씨앗은 익힌 씨앗이었다. 다른 꾀 많은 아이들은 싹이 나지 않자 다른 꽃씨를 심어서 꽃을 피운 것이었다.

- <<빈 화분>>(사계절) -

- ① 빈 화분을 들고 간 핑과, 개나리 상자를 가져온 수재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 ② 임금은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클라라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능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사람이다.
- ③ 꽃을 피워 임금의 기대치에 맞추는 아이들과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아이템을 이용하는 수재는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 ④ 탐스럽게 꽃이 핀 화분을 들고 간 아이들과 무엇이든 잘하고 싶어 하는 수재의 마음에는 남을 속여서라도 행운을 얻으려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 ⑤ 핑에게 빈 화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조언한 아버지와 수재에게 아이템이 없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준 할머니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사람이다.

(정답:③)

20.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보며 스트레스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이고,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거나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스트레스 수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해진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최선의 대처를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후 자신이 느꼈던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해결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욱 꼬이고 스트레스 반응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 -

- ① 스트레스가 불편하고 힘든 것인 줄만 알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구나.
- ② 매번 깜빡했다는 철민이에게 소리치며 게임기 내놓으라고 달려든 것은 수재가 스트레스에 나름 능동적으로 최선의 대처를 한 행동이었어.
- ③ 철민이가 게임기는 돌려주었지만, 반 아이들끼리만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에도 놀아주지 않는 것이 수재에게는 온통 스트레스로 느껴졌겠네.
- ④ 수재가 아이টে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서 일도 점점 더 꼬이고 갈수록 스트레스도 커졌던 거야.
- ⑤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현재 상황의 불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정답:②)

[21~30] 《기후 위기 시대, 슬기로운 경제 수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1.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끼리 묶인 것은?

- ㉠ 무역에서 수출은 농산물의 비중이 높고 수입은 공산품의 비중이 높다.
- ㉡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90%, 가정은 5%, 농업이 3% 정도이다.
- ㉢ 기업이 신규 고용 대신 설비를 늘리는 '고용 없는 성장' 사회가 되고 있다.
- ㉣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69시간이고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중 약 18%가 넘으며 점차 초고령 사회로 달려 가는 중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④)

22. 이 책에서 우리 삶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저자가 제안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기농 농민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② '빨리빨리 사회', '과로사 공화국'에서 벗어나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 좋아지도록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③ 빨리 만들고, 빨리 입고 버리는 패스트패션의 문제점을 알고, 꼭 필요한 옷만 사거나 만들어 아껴 입어야 한다.
- ④ 스마트폰 충전기 끝을 표준화하여 회사가 달라도 쉽게 충전할 수 있게 하며, 오래오래 쓰도록 더 잘 만들어야 한다.
- ⑤ 집은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거주 목적보다 큰 빚을 내어서라도 사다 팔았다는 반복하는 투자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⑤)

23. 환율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기업을 전부 고른 것은?

- ㉠ 이번 방학에 미국 여행을 가는 대학생
- ㉡ 원자재를 수입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업
- ㉢ 원화 예금 대신 달러 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원
- ㉣ 불닭볶음면, 냉동 김밥 같은 한국 식품을 수출하는 회사
- ㉤ 매달 월급을 달러로 바꾸어 고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노동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④)

24.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경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 ② 살림살이 경제를 알면 돈벌이 경제 활동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결정이 쌓여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 ④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 ⑤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답:②)

25.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경제 활동에 참여한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1+1 제품을 골라 샀다.
- ② 거의 신지 않고 작아진 신발을 중고 마켓에 내놓았다.
- ③ 내용물은 적는데 포장이 여러 겹인 과자는 사지 않았다.
- ④ 편의점이나 슈퍼에 심부름 갈 때 시장바구니를 꼭 챙겼다.
- ⑤ 부모님께 값이 비싸더라도 유기농 농산물을 먹자고 말씀드렸다.

(정답:①)

26. 이 책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 제목을 보고 기후와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다.
- ② ‘쉬는 시간’ 부분도 꼼꼼히 보고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읽었다.
- ③ 글쓴이가 말하는 보은심·통찰력·책임감이 경제생활에 필요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었다.
- ④ 차례를 보고 책의 구성을 짐작한 후 소제목의 물음과 본문의 내용을 연결하며 읽었다.
- ⑤ 분량이 많은 책이므로 줄글보다 중간중간 나오는 만화를 중점으로 내용을 파악하며 읽었다.

(정답:⑤)

27. ㉠~㉣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 가족이나 친족들이 대를 이어 경영하는 기업 집단을 (㉠)이라고 해요.
- 어떤 학자들은 이제 ‘따뜻한 지구’ 단계를 지나 ‘끓는 지구’라는 (㉡)가 진행 중이라 해요.
- 지구 전체의 물, 땅, 공기, 숲 등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일정한 수준, 즉 (㉢)가 있어요.

| | ㉠ | ㉡ | ㉢ |
|---|------|--------|-----|
| ① | 대기업 | 지구 비등화 | 최대치 |
| ② | 대기업 | 지구 온난화 | 임계치 |
| ③ | 재벌 | 지구 비등화 | 임계치 |
| ④ | 재벌 | 지구 온난화 | 최대치 |
| ⑤ | 중소기업 | 지구 비등화 | 임계치 |

(정답:③)

28. 이 책의 독자가 아래 뉴스를 보며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앵커: ‘금사과’로 불릴 만큼 크게 올랐던 사과값이 요즘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에 담기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과일값이 오르면 가장 반길 곳이 농가일 텐데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기자가 농민을 만나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기자: 경북 문경의 사과 농가들은 모처럼 사과를 팔아 목돈을 만질 거란 기대를 일찍 접었습니다. 전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농협에 출하하긴 했지만 소득은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냉해와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데다 인건비와 농자재값이 올라 손에 쥌 수 있는 돈이 적었습니다.

사과 재배 농민: ‘사과 농사지으면 돈 벌겠구나’ 말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따져 보서는 저희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기자: 유통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과의 경우 생산에서 소비까지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출하 때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운송 등 유통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60%가 넘습니다. 이 중 도소매 과정에 붙는 이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매제를 독점하는 도매 법인들은 경매 물량이 적든 많은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 구조여서 유통비용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 <KBS 뉴스>(2024.04.02.) -

- ① ‘금사과’로 불릴 만큼 사과값이 오르니 농민들은 수입이 매우 많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구나.
- ② 냉해와 병충해가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니 이상 기후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 ③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에 농민들의 수입과 상관없이 소비자들만 비싼 사과를 먹게 된다니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엉뚱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겠어.
- ④ 농가에 보탬을 주고 안정적으로 사과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하려면 전 국민이 ‘하루 한 알 금사과 먹기 운동’을 벌여 시름에 빠진 사과 농가를 도와야겠어.
- ⑤ 기후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과일이나 채소값도 사과값처럼 급등할 테니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자가 사 먹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부족한 품목의 수입 조치를 해야겠어.

(정답:④)

29.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통 사용자 측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곧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용자는 돈을 벌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요즘 고용은 보장하지만 퇴직 때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는 ‘무기 계약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고 단순한 일을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분리직군’이란 것도 생겨났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더 나쁜 조건으로 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 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은 일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것보다는 나쁜 조건이더라도 일 자리를 얻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나쁜 작업 환경에 시달리고 실업의 위협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 《사회 선생님이 들려 주는 경제 이야기》(인물과사상사), 재구성-

- ① 기업은 생산 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한다.
- ② 기업은 ‘무기 계약직’, ‘분리직군’을 만들어 책에서 말한 쉬었음 인구나 구직단념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 ③ 질이 낮은 일자리와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이 책에서 기대하는 ‘워라벨’은 깨지게 된다.
- ④ 사용자와 노동자는 상반된 입장인데 노동자들에게 힘이 없으니까 이 책에서 말한 대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 ⑤ 이 책을 보면 정부가 대기업 편에 서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니,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답:②)

30. [가]와 [나]를 읽고 나는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가 먹는 곡물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물 비율은 2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쌀을 빼고 다 수입하는 셈이에요. 콩이나 두부·팝콘·라면·빵·햄버거의 재료는 대부분 외국산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전기를 얼마나 쓸까요? 한국인의 전기 사용은 세계적으로도 선두 그룹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약 4.5토우 또는 약 10메가와트로, 세계 7위권이지요. 선진국 클럽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산업용이나 상업용이 아주 많은 편이에요.

- 《기후 위기 시대, 슬기로운 경제 수업》 -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량의 3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막히면서 공급 대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으로 값이 오른 것은 곡물뿐이 아닙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뉴스로 키우는 경제 지능》(판), 재구성-

- 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나라처럼 곡물과 석유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 ② 곡물과 원유, 천연가스의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도 줄어들 테니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환경을 지키는 좋은 기회야.
- ③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가 즐겨 먹는 두부와 빵, 라면, 햄버거 등의 원료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겠어.
- ④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 상황도 불안해질 수 있으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자립 능력을 드높이고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해.
- 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면 전기 사용이 많은 공장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나 화학 제품 가격도 올라갈 테니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되겠네.

(정답:②)

[31~40] 《어린이를 위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1. 저자가 말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전부 고른 것은?

- ㉠ 좋은 인상을 주어라
-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 ㉢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 ㉣ 도전 의식과 경쟁심을 자극하라
- ㉤ 기분 상하지 않게 상대의 잘못을 말하라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③)

3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인간관계의 비밀 열쇠 | 예시로 든 인물 | 참고한 말이나 생각 |
|-------------------|-----------------|------------|
| 관심을 끌며 대화를 잘 나누어라 | 나폴레옹 3세(프랑스 황제) | ㉠ |
| 도전 의식과 경쟁심을 자극하라 | 찰스 슈왑(미국 기업인) | ㉡ |
|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 벤저민 프랭클린(정치가) | ㉢ |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 엘버트 허버드(작가) | ㉣ |
| 좋은 인상을 주어라 | 하워드 서스턴(마술가) | ㉤ |

- ① ㉠: 황제로서 할 일은 많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지.
- ② ㉡: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잘하게 하려면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누가 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가?' 하는 경쟁심 말입니다.
- ③ ㉢: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처럼 내 생각만 맞다는 식의 말 대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 생각에는'과 같은 말을 쓰는 게 좋겠어.

- ④ ㉔: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저도 제 글에 대해 완전히 찬성할 수 없더군요. 다시 읽어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⑤ ㉕: 나는 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을 사랑해. 내 공연을 보러 와 준 고마운 사람들이니 나는 최선을 다해 마술 공연을 할 거야.

(정답:②)

33. 아래 카네기가 한 말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상대방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니? 그럼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 봐.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도 잊지 말고.

- ① 대화할 때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만 열심히 들어 주면 되겠구나.
- ②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과장되게 감탄하며 네가 최고라고 치켜세우라는 의미구나.
- ③ 상대가 슬퍼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라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잃지 말고 대해야겠어.
- ④ 새 옷을 입고 온 친구에게 무조건 예쁘다고 칭찬해 준다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 ⑤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지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해 주어야겠어.

(정답:⑤)

34. 아래 말하기 방법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명령이나 지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기분이 나빠져요. 직접 명령하는 대신 질문하면서 다른 방법을 알려 주면 어떨까요?

- ① 너 왜 자꾸 진짜인 척해? 이제 그만둬!
- ② 학교는 어땠고? 애들과 싸운 건 아니겠지?
- ③ 너희, 내가 어제 분명히 단소 연습하라고 했을 텐데?
- ④ 네 방이 지저분하던데 시간 날 때 청소기 좀 돌릴래?
- ⑤ 학원도 빠지고 놀 생각만 하는데 성적이 오를 수 있겠니?

(정답:④)

35. 이 책의 띠지에 쓸 문구로 알맞은 것은?

- ① 성공하는 삶을 위한 진로 지침서
- ② 새롭게 해석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 ③ 행복한 관계 맺기를 위한 슬기로운 대화법
- ④ 데일 카네기가 들려주는 후회 없는 인생 이야기
- ⑤ 글보다 말이 중요한 시대, 말 속의 진실 가려내는 법

(정답:③)

36. 이 책을 읽고 쓴 서평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은?

- ① 이 책의 원전은 1936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로 시대를 초월해 읽히며 사랑받는 고전이다.
- ② 읽은 내용대로 실천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모든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
- ③ ‘이 책의 활용법’과 ‘이것만은 꼭 체크, 체크’로 독자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실용서이다.
- ④ 미국의 데일 카네기가 성인을 위해 쓴 자기계발서를 우리나라 어린이 독자가 읽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 ⑤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11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필요에 따라 찾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답:②)

37. 밑줄 친 낱말이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하지만 꼭 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 ② 어느 날 편지를 부치려고 뉴욕의 33번가 우체국에 갔어요.
- ③ 마음이 심란했던 링컨 대통령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 ④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축 처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 ⑤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덜붙여 말했어요.

(정답:⑤)

38. 밑줄 친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내가 전기를 쓰더라도 그쪽 회사 전기는 안 쓸 거예요. 그 회사는 마음에 안 들어요.”

- ① 쓰다: [동사] 권세 따위를 행사하다.
- ② 쓰다: [동사] 마음을 쏟거나 억지를 부리다.
- ③ 쓰다: [동사] 돈이나 물자를 들이거나 없애다.
- ④ 쓰다: [동사] 어떤 일에 도구나 수단이 되게 하다.
- ⑤ 쓰다: [동사]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다.

(정답:③)

39. [가]와 [나]를 읽고 나는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어느 날 손님이 소녀에게 말했어요.
”마리, 너는 네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구나!”
마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방으로 돌아가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 보물이……. 이 말을 믿을래.’
-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

[나]
“공부도 못하고 초능력도 없으면 어떠냐, 사람마다 잘하는 건 다 다르지. 그리고 원래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어른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데, 애들이라고 완벽할까.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크는 거지.”
“할머니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그래도 하나뿐인 내 새끼데.”
“정말?”
“그럼. 수재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아가. 다 그게 부모 마음이다.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하나뿐인 자식이야. 네 아빤 뭐 다 잘했는지 아니? 할머니 속 엄청나게 썩었다.”
- <<클라라의 만물상점>> -

- ① [가]의 소녀는 자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의 수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어.

- ② 손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의 소녀가 자신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 ③ [나]의 수재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
- ④ 진심을 다한 칭찬과 격려를 듣는 사람이 나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 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가]의 손님이나 [나]의 할머니처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의 장점과 가능성을 찾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해.

(정답:⑤)

40. 이 책의 독자가 아래 오바마의 말하기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할 때 가벼운 인사와 감사의 말로 시작했어요.

“먼저 이 무서운 한파에도 일리노이에서 여기 스프링스턴까지 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단지 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바로 미합중국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오바마를 보러 온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겠지요?
오바마는 항상 꿈과 희망을 전하는 말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역사에 발자취를 남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란 곳보다 더 자유롭고, 더 관대하며, 더 잘살고, 더 공정한 나라를 물려줄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바마는 지금이 바로 미국이 다시 꿈꾸는 법을 배울 때라면서 인종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어요. 오바마는 남을 비방하거나 현실에 좌절하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강조해, 국민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또한 오바마는 연설할 때 ‘여러분’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사, 학생, 주부, 맞벌이 부부, 회사원, 사장님, 할머니, 임시직 노동자’ 등 구체적인 호칭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을 불러 줄 때 더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 《어린이를 위한 말하기 7법칙》(주니어김영사), 재구성 -

- ① 날씨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해 듣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연설장에 와 준 사람들에게 감사함도 강조한다.

- ② 사람들의 참석 이유를 미합중국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는 차원 높고 고상한 동기 때문이라고 칭찬하며, 자존감을 높여 준다.
- ③ 지금까지 인종 차별이 있었던 것은 흑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 ④ ‘교사, 학생, 주부, 회사원, 임시직 노동자’ 등의 호칭을 부르며 잘 아는 사람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 ⑤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공동체라는 느낌을 심어 주며 더 자유롭고, 더 관대하며, 더 잘살고, 더 공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한다.

(정답:③)